

## 자유토론

조규익 : 예! 손을 드시고, 이왕이면 큰 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일 :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올식 기독교가, 그 도올식 교회가 교회사에서 살아남지 못했다고 비판을 하셨는데요. 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남은 승자만이 참 교회라는 뜻인지요? 소위 말해 살아 남아야지만이 기독교적 정신을 구현하는 건지요? 오히려 자본주의 시대에 반자본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보면 오히려 그 반대로 제대로 잘 살지 못하고 억눌리는 게 오히려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지요?

김회권 :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유사한 질문이 있다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왜냐하면 질문을 서너 개 묶어서 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좋을 것 같습니다. 주재일 기자의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 꼭 영적 감화나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것이 아니고 당시의 주류 이데올로기에 유착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이지요? 자본주의시대에는 교회가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존재가 미미한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도올식 성서 이해와 과연 인과 관계가 교회사에서 살아남지 못한 소수파를 대표했거나 주류 정치적 이념이나

문화적 지배가치에 저항했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정통 교회에 의해 이단잡설이라고 매도당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지요? 예, 이 질문에 분명히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에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 질문을 중심으로 곧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익 : 가능하시면(종이에 질문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한 그 범위 안에서 질문을 제기해 주시고 질문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질문도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지요.

김회권 : 주재일 형제님 잠깐 나오실래요? 질문하셨으니깐. 조 교수님 질문한 분들 나오시는 건가요?

조규익 : 아니요. 질문을 하실 분만 나옵니다.

김회권 : 다른 분들이 새로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첫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그것의 순수한 가치를 훼손당하거나 상실하지 않은 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속한 보다 더 큰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나 지배가치에 유착되어 번성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자본주의라고 혹은 사회주의라고 소멸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만 중국에는 어떤 정치적 경제적 체제나 이데올로기도 교회를 소멸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시절에도 영적 감화력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공동체가 있어야 영적 감화의 정당성을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시대 때도 마찬가지

지고 히틀러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더 어려운 시대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는 가시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그런 존재가 있어야만이 영적감화력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객관적 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올식 성서 이해가 겉으로 보기에는 단지 잘못된 기존 교회에 대한 인문학적 비판만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교회를 즉 믿는 공동체의 그 어떤 원심력 해체를 촉발시킬만한, 반기독교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일종의 도올식 성서 이해는 우리가 이성으로 접근할 수 없는 많은 신비를 모더니티 정신으로, 즉 현대인인 우리가 옛날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성경의 신비와 낮섬성에 대하여 합리주의적 비평으로 농단을 한 점이 있습니다. 도올식 성서 이해는 모더니즘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현대주의적 자신감과 우월감으로 너무 많이 비평을 했기 성서의 영적 종교적 감화력에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도올식으로 성서를 취사선택하여 또 하나의 경전을 만드는 태도는 자칫 신앙적 자유나 대담함으로 보일지 모르나 성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성서 이해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회적 역량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올식 성서 이해가 세계교회사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미미한 소수파의 의견으로 전락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규익 : 자, 또 질문들 해 주십시오. 다들 감동받은 표정들이신데, 그래도 가능하면 도올 선생 논리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한 김 교수님의 비판에 대해서 혹시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성함하고 가급적이면 소속 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 : 저는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서는 굉장히 도올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그렇게 높이 평가받을 사람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기껏 신학교 중퇴자로서 대단한 신학적 의견을 낼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가 전에 한 방송에서 중국 고전 강의를 했을 때, 아주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온 국민들 앞에서 노자를 이야기하면서 코미디 수준의 강의를 했다고 아주 최악의 평을 받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는 한의원하면서 신약·구약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것은 그 양반은 구약을 백번이상 읽어야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구약을 안 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마구잡이로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격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그에게 너무 진지하게 대응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권 :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자의 문제제기는 제 강의에 대한 질문이자 논평인 것 같습니다. 그 요지는 오늘 도올 강의를 그에게 다소 융숭한 평가를 했다는 것이지요? 격에 맞지 않는 융숭한 대접을 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께서 도올에 대해 내린 평가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습니까? 독서를 통해서입니까? 직접 강의를 청취했습니까, 아니면 누구로부터 도올에 대한 평가를 수집했습니까?

질문자 : 세 가지 답니다.

김회권 : 어떤 책을 읽으셨습니까?

질문자 : 『여자란 무엇입니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몇 권을 읽었습니다.

김회권 : 최근에 나온 두 책, 오늘 다룬 두 책(<기독교 성서의 이해>, <요한복음 강해>)을 읽어보셨어요?

질문자 : 그 책은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 고대에서 다른 강의는 들어봤고요.

김회권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 질문자가 껴서 질문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계보의 질문이 있을 것 같아 그것을 상정하고 답변하고자 합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는 오늘 제 강의가 도올에 대해 너무 진지하게 응답해 준 것이 아니지 않은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강의를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엄격하게 말해 인간 도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가 최근에 기독교와 관련하여 쓴 책들을 분석하고 논평하는 자리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생물이자 영물인 인간 도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가 이미 지식 세계에 출간한 책들에 대한 평가라는 점을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그가 책에서 쓴 내용이 우리의 평가와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그가 다른 곳에서 방송에서 혹은 그의 전기적 일화 등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기독교와 관련하여 쓴 책들과 글들을 자세하게 읽고 그것들의 중심논지를 분석하고 논평했습니다. 그가 산출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일관성이 있는 부분과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가려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책들 안에는 어떤 부분은 대꾸를 할 가치를 못 느낄 정도로 객기 어린 그런 신변잡기도 있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정치한 논리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신학자로서 성서학자로서 정당하게 응답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질문자의 평가는 도올이 쓴 글에 대한 다소 치우치고 희화화된 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올의 책 속에는 너무나 비학자적인 것일 정도로 즉흥적인 분석이나 관찰도 많 습니다만, 또 많은 경우에는 다른 학자들보다 더 탁월하고 지나칠 정도로 아주 꼼꼼한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인문학자로서 그의 저서가 드러내는 좋은 쪽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왜? 오늘 이 자리는 ‘인문학포럼’이기 건설적인 인문학 담론이 주도하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도올을 건드리지 말고 아예 무시하자는 말도 있습니다. 성서학 자들에게도 진지하지 않게 내버려 두고자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하게 답변하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텍스트 안에서는 분명히 그냥 비난하고 매도해서는 안 되는 정치하고 치밀한 논리도 있고 경청할만한 주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그 안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논리도 있고, 자기모순적 어법도 있고, 과장적 혹은 축소주의적 진술도 있게 마련입니다. 도올이나 모든 다른 글쓰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일입니다. 제가 도올에게 높이 평가한 부분은 초기 기독교 역사를 다룰 때 보여준 상상력 부분이었고, 높이 평가하지 않는 부분은 신구약의 관계, 기독교정경 형성의 역사 등에 관한 그의 논의입니다.

조규익 : 오늘 우리 주제가 도올을 깬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도올에 대해 상당히 고평가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박정신 원장님도 ‘도올은 도올일 뿐이다. 그러니깐 도올에 대해서 객관적이면서도 또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화답을 하듯이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도올에게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전제로 하고서 우리가 역시 그 학문적인 대화를 하는 자리인 만큼 그런 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을 포함하더라도

역시 도올의 논리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회권 교수님 같은 분을 또 뽑기가 사실 쉽지 않으니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싶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정기 : 안녕하세요. 저는 송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정기라고 합니다. 교수님 수업도 작년에 들었고, 박정신 교수님을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써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맹신적으로 정경주의적인(정경 절대주의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올이 마스크에서 그것을 깨버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런 도올의 주장이 정경절대주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그 영향이 과연 긍정적일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일 것인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회권 : 제 강의 원고 17, 18페이지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도올의 강의나 책은 한국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눈을 새롭게 뜨게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혼돈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어떤 분에게는 소위 정통 기독교회가 이미 닫혀진 66권의 정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폐쇄적으로 고착시켜서 새로운 하나님 경험을 막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신앙경험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좀 고착된, 덜 개방적인 정경 절대주의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구약 66권이 충분히 개방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그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수준의 하나님 경험, 신앙경험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66권의 닫힌 정경이 얼마나 하나님 경험을 가로막았는지 혹은 교회사의 긴 과정에서 기독교와 인류에게 폐해

를 끼쳤는지 하는 문제는 긴 연구가 필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저는 성경은 충분히 개방적이고 그 자체가 자기교정적일 정도로 대화주의적이고 조정주의적일 정도로 포용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회의 신앙 실천의 부족이나 결핍을 단힌 정경에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조규익 :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도올의 종말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좀 설명해주시죠.

김희권 : 종말론은 지금 도올이 이국현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해서 <뉴스앤조이> 등에서 비판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국현은 도올이 기독교의 종말론을 약화시켰다고 봅니다. 도올이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기독교의 종말론이 요한복음에 오면 거의 와해되었다고 말하니까 이국현이 비판한 것입니다. 보통 종말론 하면 인간의 역사가 대파국적 종말을 맞이하고 그 파국을 재림 예수께서 수습하여 천년 왕국을 개시한다는 시나리오를 말합니다. 그런데 직접 예수님이 구름타고 와서 역사를 마무리 짓는 그런 종말론을 특히 묵시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종말론이라는 말은 천지 개벽적인 종말, 이 세상의 기존질서를 뒤집어엎어버리는 체제 전복적 종말론이지요. 도올은 이런 종말론은 기독교의 초기 종말론으로서 비교적 후기 기독교를 대표하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것이 거의 해체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에는 “지금 거듭나는 것이” 종말론적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역사를 소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거듭나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역사 안에서 역사를 소제하고 역사의 부조리와 무질서를 정복하는 그런 묵시적 종말론이 요한복음에 현저하게 약화되었다는 거지요. 이 자체는 보통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도올이 요한복음의 종말론에 대한 평가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종말론이

성경 전체의 종말론 혹은 기독교 전체의 종말론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과잉주장이 되지요. 이국헌이 도올에게 왜 당신은 요한복음의 종말론이 마치 기독교의 종말론을 대표하는 것처럼 말하느냐고 비판하니까 도올은 쉽게 그의 지적에 동의했습니다. 도올은 “나도 당신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묵시론적 종말론보다는 실현된 종말론이 더 많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강의는 도올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종말론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정확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신약성경에서 두드러진 묵시적 종말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요한복음이 그것을 다소 완화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올의 <기독교 성서의 이해>와 <요한복음 강해>를 두 번 읽었던 이유는 혹시 학자로서 도올이라고 하는 공인의 사상을 불성실하게 비판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며 아울러 송실의 명예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올도 민감한 교리 문제를 언급할 때는 아주 조심하는 자세를 역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일부 물지각한 사람들의 맹신적 비난의 쓴맛을 아는 사람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올은 방송국을 점령한 일부 극우파 기독교인들의 위대한(?) 힘을 알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고 있고, 자기를 항상 정통의 자리 안에 어딘가에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도올은 아타나시우스의 정경 이해가 기독교의 정경 이해가 되어버린 정경형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지만 현재의 신약 성경 27권 정경체제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는 한국교회가 진리의 힘을 드러내기 때문이 아니라 좀 다른 의미로 매우 무서운 집단임을 그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는 옛날의 패기만만한(??) 도올을 점점 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노재경 : 제가 질문을 잘 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대학원에 3년차로 공부하고 있는 노재경목사입니다. 도올이 주장하고 있는 경전 절대 주의에 대한 파괴와 반대는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도올에 따르면 신약 정경 27권 체제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와 로마 황제의 정치적 합작의 산물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연히 생겨난 정경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김회권 : 아타나시우스와 로마 황제의 합작처럼 보이는 과정이 필시 신약 27권 체제의 정경화 작업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많은 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참여한 우발적인 요인이지요? 신약 27권에 대한 개별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심사와 점검, 공동체적인 사용과 점검, 학자들과 성직자들의 심사숙고 등이 성령의 인도 아래 이뤄졌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타나시우스와 로마 황제는 이미 각각의 책에 있는 정경성을 발견하고 추인하고 승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도 이미 27권으로 된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사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재경 :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경전 절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현재의 교인들이 그들이 스스로 경전절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보시는지요?

김회권 : 저는 기독교인들이 경전 절대주의적이기보다는, 경전 준절대주의적 정도의 사고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전 해석이 잘못되면 해석 그 자체가 절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항상 경전을 높이 사야 하지만, 경전의 이름으로 잘못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하겠지요. 경전절대주의라는 말은 너무 강한 언어라는 생각이 듭니

다. 경전 절대주의가 성경에 대한 견해들을 교리적인 절대성으로 격상시켜 한 방향의 성경관으로 신학적 폐쇄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건강한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경전 준절대적주의적 태도를 갖고 자신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의 해석에 견주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들이 준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정경적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말이 아니라 해석의 상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성경의 원래적 개방성 포용성 대화주의적 자세를 인정하자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 이외는 우리에게 절대적 권위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전이지만 경전은 인간의 언어에 매개되어 있고, 문화적 조건 역사적 특수성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언어와 문화와 역사로 둘러싸여 있는 정경을 해석학적 여과없이 절대화하게 되는 상황을 늘 경계하자는 취지입니다.

조규익 :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세요. 토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질문자 :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만 영지주의적인 틀을 이용해서 했다고 도올이 했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외에는 다른 신약 성경에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이 없는 건지요? 또 공관복음은 어느 정도까지 요한복음과 차이가 있길래 도올이 출창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지요?

김회권 : 그 마지막 질문은 정규 신약성서의 이해 같은 수업시간에 다루어져 할 질문이기에 여기서는 자세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간략하게 답변드립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공관복음이라함은 예수를 동일한 방식으로 바라보는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인간으로 보

기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보는 거지요. 공관복음서는 귀납적으로 현상을 관찰한 끝에 마지막으로 일반적 진리를 이끌어내는 귀납적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연역적 방법으로, 예수를 처음부터 신이라고 보면 시작하는 연역적 복음입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예수가 기적을 행할 때마다, 엄청난 군중의 놀람 현상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그 성육신 사건이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기 때문에 이 때 크게 한번 놀라고 나서부터는 다음부터는 전혀 안 놀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신약성경의 언급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골로새서 2장 등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지주의는 혼인을 폐하고, 부부 사이의 분방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과도한 금욕주의를 시행하려는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지주의는 일탈된 영지주의이며 도올이 요한복음 강해사에서 자세하게 말하는 그 영지주의와는 격이 다소 다릅니다. 다만 영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노시스인데 이것은 여러 단계의 위계질서로 구성된 영적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비밀수련자들의 영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사상은 육체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벗어버려야 할 거추장스러운 옷이며 우주에 충만해 있는 영과의 합일을 위하여 영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도올이 말한 영지주의는 당시의 대표적인 헬라철학적 우주관과 세계관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조규익 :** 원래 토론에서는 발표자의 논리적 허점을 많이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말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학생들 특히, 학생들 중에서 나오실 분!

**최미락 :** 저는 국문학과 2학년 최미락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에 관해서, 저는 영지주의를 잘 몰랐는데. 요한복음에 로고스란 단어가 나오잖

아요. 요한복음을 요한이 쓸 때, 그 당시의 철학적 배경이나 시대상에 관련해서 로고스, 어떤 우주의 불변한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로고스란 단어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아까 그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정경 준절대주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위험한 발언인 것 같고, 정경 해석이 준절대주의라고 해야지 좀 맞지 않을까요?

김회권 : 똑같은 말 같습니다. 정경은 절대주의적이지만, 그 해석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말이지요? 저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정경은 인간의 언어라는 유비적 형식 안에 매어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언어라는 매개물이라는 것에 달려있는 정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절대라는 범주가 개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적 정경이라도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매우 위험하니까 준 절대적인 경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솔직하고 실용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질문자 : 제가 한번 좀 보충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강의 가운데 방금 설명할 때에 경전 절대주의에 대한 반대가 이미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아모스서든가요?

김회권 : 주전 8세기 예언자였던 아모스는 그 당시에 거의 절대적 규범처럼 수용되던 구원사 전통, 제사전통에 관련된 율법들을 비판했습니다.

질문자 : 그렇죠.

김회권 : 아모스 5장 18절, 21-24절에 보면 아모스는 절대주의적 단힌

정경주의 신앙과 유사한 맹목적 전통고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 그런걸 보면 성경에도 이미 경전 절대주의에 대한 반대라 할까요, 이념이 지배하고 있다는 이 말이죠.

김회권 : 그렇죠. 그걸 그때는 경전 절대주의가 아니라, 전승비판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래된 전통이 더 이상 새로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역기능을 드러내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새 일, 혹은 낯선 하나님, 하나님의 기이한 일 등의 사상을 도입하여 인습적이고 고식적인 전통주의를 비판하지요.

질문자(노재경 목사) : 그렇기 때문에 도올도 경전을 절대시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과정은 좀 문제 있지만, 경전절대주의를 도올처럼 이렇게 반대하는 것의 긍정적인 의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단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연구해 봤는데, 이단들은 거의 경전 절대주의에 빠져있습니다. 구원파도 그렇고, 대순진리라든지, 아니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일반적인 모든 이단들은 거의 경전을 문자적으로 완전 절대주의화 하는 경향을 드러냅니다. 역사적 배경이나 맥락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지 않고 교인들을 우매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도올은 방법과 과정은 다를지 몰라도 그의 경전비판적 시도는 상당히 좋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김회권 : 제 글을 잘 읽어 보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노 목사님 말씀의 내용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모스 5장 18절을 보면 ‘여호와와 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여 여호와와 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의 날이 자신들의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모스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의 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습적이고 전통고수를 비판한 것이지요.

조규익 : 김 교수님이 아까 발표하실 때 도올이 성서에 대한 해석을 지나치게 과잉, 단순화시켰다고 하셨는데, 요즘 신학자들이 벌여놓은 너무 복잡한 성서해석을 단순화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 아닐까요?

김회권 : 제가 그런 말이 아니라, 특정 본문의 맥락과 배경을 아예 무시하고 기본적인 해석 원칙도 무시한 단순, 과잉해석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선한 참 포도나무요'라는 말은 도올은 이사야 5장이나 예레미야 2장의 포도나무와 이스라엘의 동일시 비유에 호소하지 않고 바로 당시 지중해 일대에 퍼져있는 포도나무 비유의 보편성에 호소하면서 해석하는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전인수 : 안녕하세요. 저는 영문과 2학년 전인수라고 합니다. 도올의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을 봤더니, 도올이 하는 말이 신앙이란 어떤 한 인간의 독단적인 언사를 비이성적으로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저도 평소에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이성적인가 비이성적인가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회권 : 제 강의안 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8쪽 중간에 보면, 도올은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려는 키에르케고르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은 결단이자 허공 속으로의 투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올은 예수라는 사건, 즉 동정녀 탄생설화, 혈우병 여인의 피를 멈추게 한 사건 등은 과학적 세계관에 고

뇌를 안겨주고 그것과 조화될 일이 아니므로 무조건 믿음으로 영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성경을 과학적 세계관으로 세레받은 지성인이 이 성과 부합되는 방식으로 읽으려면 세계간 갈등이 유발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는 이때 예수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이고 온건한 시도를 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비이성적 투신 행위)를 포기해야 하는 셈이 되므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문과 학생이 말한 그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도올의 입장이 이 점에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 강의 원고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도올은 또 다른 한편 이성과 제후하지 않는 신앙은 그건 틀린 신앙이며 스킨라 신앙의 장난질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앞에 한 말을 정면으로 논박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도올이 단지 틀렸다고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신비요 역설의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도올처럼 이성적으로 신앙의 문제에 접근하겠지만 이성이 신앙의 선물과 신비성 앞에 전혀 무기력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 강의안에는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올은 신앙과 이성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바라보고 혈루병 걸린 것, 동정녀 탄생 등을 자꾸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핵심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합리적 해석을 시도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분명히 요한복음 6장 2절에 따르면 표적입니다. 그런데 도올에 따르면 돈 많은 여인들이 뒷돈을 대어 빵을 몰래 사가지고 와서 나누어 먹게 한 자연주의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 도올 자신도 입장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뇌를 안겨주는 쟁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에는 우리 학생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기독교신앙 안에는 창세기 22장처럼 어둠속에 도약하는 그런 불확실성을 향한 투신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 지성적으로 호소하는 요소도 있습

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두 가지 국면을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꾸 하늘에 나는 새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연 관찰을 지도할 때는 우리 머리를 써서 자연 안에 있는 만유의 하나님께 보편적인 섭리는 보고 추론하여 신앙을 배우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이성적 사고를 충분히 활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성경에서 “생각하라” “보라” “추론하라”고 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은밀히 권고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통명스럽게 나와 순종과 믿음을 기대하는 경우는 아마도 우리의 이성적 질문이 별로 필요가 없는 때일 것입니다(창 12, 22장).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이성적 추론과 심사숙고를 거친 결단도 필요하지만 직관적이고 즉흥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성경에 있다고 믿습니다.

조규익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인옥 : 저는 강남중앙교회 이인옥 전도사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고요. 27페이지에 교수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글에는 도율이 폐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구약의 율법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최근 도율 선생이 어떤 인터뷰에서 본인은 구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 구약의 율법주의를 폐기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약 경전은 어디까지나 유대교의 경전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라라고 언급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회권 : 저는 도율이 구약 율법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점을 문제삼습니다. 구약 율법은 약 네 종류입니다. 보편적인 설득력과 적용력을 갖는 십계명도 있고 요즘 위생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되는 산

후조리법 등도 있습니다. 여성이 딸을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는 66일 동안 부정하다는 말 등은 이해가 잘 안되는 법입니다. 도올이 특정 율법의 폐기를 주장했다면 그는 비판받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모든 구약율법들에 대한 축자적으로 절대화를 반대했다면 그다지 큰 시비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 율법에 대한 정교한 구분이나 세밀한 분석 없이 율법의 형태로 된 모든 구약을 폐기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함으로써 오해를 자초한 점이 있습니다.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도올이 자신에 대한 한국교회의 비판이 쏟아지자 자신은 구약의 폐기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더군요. 그런데 구약율법과 구약의 분리는 쉽지 않습니다. 구약 율법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탱하는 도구인데 그 율법을 폐지한다면 구약의 폐지와 거의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도올의 기독교신앙은 마음으로는 정통에 머물고자 하지만, 지성적인 양심과 신앙적 이성은 제방을 범람한 홍수처럼 정통신앙의 경계를 손쉽게 넘어버리려고 합니다. 도올의 문제제기는 종교재판식이나 마녀사냥식이 아니라 더 깊은 학문적 숙고와 연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규익 :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 분에게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완 박사 뭐 질문 하실 것 없습니까?

정은혜 : 저는 2학년이고, 그래서 아직 어린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도올의 책들이나, 아니면 아까 노 목사님이 말씀하신 뭐 정경 준절대주의 이런 것처럼,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 이런 포럼에 참석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있었더라면, 그냥 맨 처음 받아들인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받아들여

서 그것만 절대적으로 믿고 아니면 맨 처음 도올의 책을 먼저 읽고, 도올의 사상만을 가지고 따라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럼에 모두 다 참석하지도 못하고, 또 성경도 전체적으로 다 읽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바로 믿는 길을 알수 있을까요? 바르게 살아가고 휘둘리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 학생들이 어떻게, 어떤 자세로, 책을 읽고, 학문을 탐구해 가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김희권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정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올한테 휘둘리기 전에도 아무도 정경을 절대로 신봉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취사 선택하여 믿고, 마르시온 못지않게 각자가 자기 좋아하는 대로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정경을 절대주의로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올에게 영향을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청하는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올이나 마르시온이나 우리 모두 다 취사 선택적, 절충주의적 입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본주의적인 토지 개념, 즉 땅을 신성불가침 재산으로 삼아 매매 수단으로 삼거나 영구적 사유재산으로 삼는 제도는 레위기 25장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이것은, 땅은 천부 인권에 속한다는 성경 사상과 배치됩니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이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면 범죄자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삼일 이상 굶은 사람의 경우 그가 어떤 흠쳐 먹어도 절도죄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지하는 이 대한민국, 자유주의 정부는 성경의 토지법이나 기타 법들을 문자적으로나 혹은 절대적 경건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자본주의 체제가 성경의 정경 절대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다 어떤 의미에서 사사시대적 무정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 한번 못 들었다고 인생에 중

대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집안에 매여 살다가 이런 기회가 잘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주 플랜카드를 봐야 되고요. 일단은 광고를 잘 들어야 합니다.

출애굽 할 때, 광고 듣지 못한 사람은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 먹고, 유월절 빵 먹는 사람이 구원 받았지, 광고 안 듣고, 그냥 먼저 나간 사람은 우박을 맞았다고하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뢰할 만한 동료, 선배, 멘토들이나, 선생님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면 상당한 깨우침의 기회가 오리라고 보고요.

조규익 : 질문 하나만 받죠. 한 사람만 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 저는 참석하지 않는 듯이 하고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거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타락이 와서 죽음이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종말이 오고 심판이 있고 또 마지막에 믿는 자의 구원이 있다 하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절대적인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천으로써 모든 인류는 이 창조의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이유는 모든 인류가 그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올이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점은 그가 구약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학문적 지성을 가지고 뭔가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김 교수님께서 그 탁월성을 일단 드러내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회권 :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탁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관해서는 매우 많은 객기와 흥분이 앞섰다고 했고, 초기 성경 형성의 역

사 재구성 문제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지나치게 경시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후자는 좀 더 진지한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완 : 김 교수님께서 도올에 대해 가장 오늘 핵심적으로 비판하신다는 부분은 구약의 내용을 안 보고 구약이라는 큰 이름으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학자적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구약학자로서 김회권 교수님께서 도올이 드러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여 크리스천과 논크리스천까지를 다 예상 독자로 고려하면서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구약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미래 지향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회권 : 제 연구계획이나 집필계획에 대하여 공익광고를 하라는 거군요. 제가 1986년에 『여자란 무엇인가』 262쪽에 언급된 “사막의 깡패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하여 글을 쓸 기회가 오기를 바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기독교청년들의 여름수련회에서 여호수아를 갖고 주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7월말에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라는 강해서가 출간될 것입니다. 이 책 중 여호수아와 사사기 부분은 도올의 문제제기를 의식하고 썼습니다. 1986년에 도올의 책에서 읽은 한 구절이 나로 하여금 이 책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쓰는 모든 저작물들은 어떤 이름으로, 기독교와 성서에 대한 제기된 질문들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친히 이런 주제들을 계속 공부해 기독교신앙의 정수를 널리 펼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